

## MS, 공공 SaaS 시장 첫 노크 외산SW 국내 확산 예의주시

M365로 클라우드보안인증  
글로벌 빅테크 중 첫 사례로  
오라클·SAP 진출 물고 전망  
토종 SW, 향후 행보에 촉각

마이크로소프트(MS)가 글로벌 빅테크 가운데 최초로 한국 공공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시장 진입을 타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마존웹서비스(AWS)와 구글 클라우드가 서버 자원을 빌려주는 서비스형 인프라(IaaS) 시장 진입에 그친 것과 달리, MS는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오피스, 협업툴 시장까지 노린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MS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Microsoft 365(M365)'에 대한 클라우드보안인증(CSAP) '하' 등급 인증을 신청, 심사 절차를 밟고 있다.

M365는 엑셀·파워포인트, 팀즈 등

기능을 제공하며 정품 인증과 보안 패치, 기능 업데이트가 클라우드를 통해 실시간 이뤄지는 구독형 SW다.

글로벌 빅테크 중 SaaS 제품에 CSAP를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오라클, SAP 등 글로벌 소프트웨어(SW) 기업들은 자사 솔루션을 공공기관 전산실 서버에 설치하거나, 국내 공공용 클라우드(KT, 네이버 등) 인프라 위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공공 시장에 진입했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가 CSAP를 등급제로 개편, '하' 등급에 한해 논리적 망분리를 허용하면서 SaaS를 공급할 길이 열렸다. MS가 앞서 IaaS인 '애저'에 '하' 등급 인증을 획득해 물리적(인프라)·논리적(가상화) 기반을 닦아놓은 것이 주효했다.

토종 SW 기업들은 MS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향후 빅테크 공세가 거세질 수 있기 때문이다. MS를 필두로 오라클, SAP, 세일즈포스 등 글로벌 빅테크가 공공 SaaS 시장에

언어어 진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번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는 "MS가 M365를 공공 SaaS로 제공하기 위해 보안 심사를 신청했다"며 "다만 심사 과정에서 보안 요건 충족을 위해 일부 기능 제외 등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를 수용할지 내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MS가 SaaS까지 '하' 등급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한국형 암호화 모듈(KCMVP)이라는 기술적 장벽을 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부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MS는 M365의 핵심인 '생성형 AI(코파일럿)'와 '글로벌 통합 인증(E ntra ID)' 기능을 제외하는 방법 등을 고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데이터 국외 이전을 통제하는 국내 인증 특성상, 글로벌 서버와 실시간 통신해야 하는 AI 기능을 온전히 탑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류태웅기자 bigheroryu@etnews.com



현대차그룹의 미국 자율주행 합작법인 모셔널이 연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레벨4 수준의 무인 '로보택시' 상용화 서비스 계획을 발표했다. 8일(현지시간) 라스베이거스 모셔널 테크니컬 센터에서 무인 로보택시로 변신한 아이오닉5가 주행 테스트를 하고 있다.

라스베이거스=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 현대차 무인 로보택시, 연말 美서 상용화

美 자율주행 합작법인 모셔널  
레벨4 수준...아이오닉5 투입

현대차그룹의 미국 자율주행 합작법인 모셔널이 연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레벨4 수준 무인 '로보택시'를 상용화한다. 인공지능(AI)이 스스로 운전 원리를 습득하는 엔드투엔드(E2E)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로드맵도 공개했다.

모셔널은 8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테크니컬 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의 로보택시 상용화 계획과 자율주행 기술 개발 전략을 발표했다.

현대차그룹이 모셔널 경영권을 확

보한 이후 첫 대규모 사업으로, 기술 검증이 아닌 상용화 의지를 나타냈다. 로라 메이저 모셔널 최고경영자(CEO)는 "연초부터 라스베이거스에서 무인 로보택시 시범 운영을 실시한 뒤 연말 상용화를 개시한다"며 "시범 운영은 서비스 안전성과 주행 품질, 고객 경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최종 단계"라고 밝혔다.시범 운영에는 아이오닉5 로보택시가 투입됐다.

중장기 자율주행 기술 로드맵도 공개했다. 핵심은 AI 머신러닝 기반 E2E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전환이다. 이는 인지·판단·제어 기능을 개별 모듈로 구성한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AI가 주행 의사결정 전반을 통합적으로

학습·출력하는 방식이다. 모셔널은 기존 기능별 머신러닝 모델을 점진적으로 통합해 E2E 구조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 대규모 주행 데이터와 학습 기술을 활용한 '거대 주행 모델(Large Driving Models)'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모셔널은 라스베이거스에서 상용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뒤 국내 포함 다양한 지역에서 도입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모셔널을 중심으로 AVP본부와 포트루닷(42dot) 간 자율주행 기술 협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라스베이거스=정치연기자 chiyon@etnews.com ▶관련기사 15면

## ‘국가대표 AI’ 6종, 글로벌 평가서 성능 인정

허깅페이스 ‘트렌드 모델’로  
공개 2주 만에 5만 다운로드

국가대표 인공지능(AI)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6종이 모두 허깅페이스 '트렌드 모델'로 선정됐다. 이들은 공개 약 2주 만에 5만여 다운로드를 돌파하며 국내외 관심 확보에 성공했다.

12일 글로벌 AI 모델 플랫폼 허깅페이스에 따르면 LG AI연구원 'K-엑사원', 업스테이지 '솔라 오픈', 네이버클라우드 '하이퍼클로바X(HCX) 시드 오픈'과 'HCX 시드 싱크', SK텔레콤 '에이닷엑스(A.X) KI', NC AI '배기(VAETKI)' 등 독자 AI 모델 6개가 모두 허깅페이스 트렌드 모델로 이름을 올렸다.

허깅페이스는 기계학습 모델과 데이터셋 등을 공유하는 글로벌 AI 모델 플랫폼이자 커뮤니티다.

트렌드 모델은 허깅페이스에서 다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컨소시엄별 현황 비교						자료:각사-허깅페이스
구분	LG AI연구원	업스테이지	네이버클라우드	SK텔레콤	NC AI	
독자 AI 모델	K-엑사원	솔라 오픈	HCX 시드 싱크	HCX 시드 오픈	A.X KI	배기(VAETKI)
모델 크기	236B	102B	32B	8B	519B	112B
다운로드 수	4384건	4391건	3만522건	971건	8785건	4269건
파인튜닝모델 수	-	1개	1개	-	-	-
양자화 모델 수	6개	12개	4개	1개	-	-

운로드 수, 사용빈도, 별점, 커뮤니티 리뷰, 최신 연구 트렌드 등 기준을 충족한 AI 모델을 의미한다. 허깅페이스에 등록된 100만개 이상 모델 중 일정 기준 이상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거나 인기를 얻는 일부 모델만 선정된다.

세계의 수많은 AI 모델 중에서도 지금까지는 주로 미국, 중국 모델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처럼 공개한 지 얼마 안 된 한국 모델 6종이 모두 트렌드 모델에 이름을 올린 것은 의미가 남다른 것으

로 평가된다.

다운로드·파생모델에서도 의미 있는 수치를 기록했다. 6개 모델은 각각 수천~수만 다운로드를 기록하며 6개 모델 누적 다운로드 수는 총 5만3322건으로 집계됐다.

이들 모델에 대한 1차 단계평가는 진행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까지 평가를 진행, 이르면 이번 주 중 1개 컨소시엄이 탈락하는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 기획처·과기정통부 R&D 예산 상설 협의체 신설

전문성+재정 효율성 확보

기획예산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상설 협의체를 신설한다. R&D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의견 조정을 거쳐 전문성과 재정 효율성을 모두 확보하겠다는 접근이다.

기획처와 과기혁신본부는 R&D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전 협의와 공동 검토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술적 전문성 검토와 재정 운용 원칙을 모두 반영할 수 있도록 초기 단계부터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우선 기획처와 과기혁신본부 간 R

&D 예산 협의회를 신설한다. 국장급 상설 협의체를 매월 1회 정례 운영해 정부 R&D 중점 투자 방향, 지출 효율화 방안, 신규사업 검토 등 의제를 시기별로 폭넓게 논의한다.

과기혁신본부의 주요 R&D 예산 배분·조정안 마련 과정에 기획처가 참여할 수 있게 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전문위원회가 각 부처 제출 R&D 사업에 대한 심층 검토 및 자문을 수행하는 과정에 기획처가 참여한다. 기획처 예산편성 과정에도 과기혁신본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기획처는 과기자문회의를 거쳐 제출된 주요 R&D 배분·조정안을 조정하

는 경우 신설되는 상설 협의체 등을 통해 과기혁신본부와 사전 논의를 거칠 방침이다. 이번 개선방안은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즉시 적용한다.

이인희기자 leeh@etnews.com

**당신의 에너지 고민을 해결합니다.**

탄소 | RE100 | 비용 | 수익

그리드워즈

**ANYFIVE**

글로벌 지식재산(IP) 서비스 시장을 선도하는 (주)애니파이프

**AI기반 IP통합관리솔루션(IP-Brain)이 최고의 제품으로 평가 받았습니다**

● 기간 : 2026. 01. 06(화) ~ 09(금), 4일간  
● 장소 : 미국 라스베가스 컨벤션센터 (LVCC)  
● 출품 : AI기반 IP통합관리 솔루션 (IP-Brain) 글로벌 기술사업화 플랫폼 (ThinkCat)

**IP-Brain**  
IP통합관리 솔루션

**ThinkCat**  
기술사업화 플랫폼

(주)애니파이프    서비스 문의 thinkcat@anyfive.com    |    사업제휴 partner@anyfive.com    |    홈페이지 www.anyfive.com